

신안 주민들 “흑산공항 건설 조속 추진하라”

“울릉공항 연내 착공한다는데...” 형평성 들며 강력 촉구 국립공원심의위 철새 보호·공원 가치 훼손 이유 결론 못내

신안지역 주민들이 흑산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울릉공항이 올해 하반기 착공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섬지역 접근성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 차원에서 소형공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흑산공항과 울릉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울릉공항은 올해 하반기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흑산공항은 울릉공항보다 3년 앞선 2023년 개항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3차례에 걸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가로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철새 보호 대책과 국립공원 가치 훼손, 안전성 등의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섬 나라인 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 등은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지역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내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을 5곳에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발리섬 동쪽 1000여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 내에 코모도공항(1393m)과 롬복국제공항(2750m)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울릉공항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울릉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1.19로 흑산공항 4.38보다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사업비도 흑산공항은 1833억원인 반면 울릉공항은 3배를 웃도는 6633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흑산공항 위치도



울릉도와 독도는 흑산도·홍도(가거도)처럼 지리적 여건과 생태 환경, 영토의 특수성 등 매우 유사하다. 환경부가 지난 2004년부터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 94%가 반대해 보류된 상태다. 특히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 분야와 별개인 항

공기 안전, 경제성을 문제 삼아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보류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다. 흑산도와 홍도, 가거도를 찾는 이용객은 연간 3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교통수단은 선박(여객선)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 주민이나 이용객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다. 파고 높은 겨울철에는 선박 통제가 잦다. 지난 2017년 최소 54일간 뱃길이 끊겼다. 반나절 이상 결항은 115일에 달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인 데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섬 주민과 이용객들의 교통권과 생명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흑산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7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1시간대로 단축돼 주민과 이용객의 교통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흑산공항은 또 동북아 생태관광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코로나19 확산 우려 곡성군 장미축제 취소

곡성군이 고심 끝에 ‘세계장미축제’를 취소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곡성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지역주민·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열기로 했던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곡성군은 한해 20만~30만명의 관광객을 유인하는 곡성의 대표 관광상품인 장미축제가 취소되면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 두차례 개최 여부 결정을 미루며 고심했다. 최근 생활 방역으로 자칫이 완화됐지만,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새롭게 발생함에 따라 결국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장미가 만개한 곡성 기차마을 내 장미공원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개장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노선인 이날까지 고심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장미 공원은 제한적으로 개방되지만 철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권 한 장으로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를 최대 50% 할인해 방문할 수 있다. 사진은 2017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모습. <완도군 제공>

완도해조류박람회 입장권 있으면 전남 관광지 50% 할인

내년 박람회 기간 여수 해상케이블카·순천만정원 등 30곳 혜택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권 한 장으로 박람회장 관람은 물론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를 무료 또는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방문할 수 있다. (재)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성공 개최 분위기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침체한 전남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근 시·군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박람회 기간인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는 여수 해상케이블카와 목포 해상케이블카, 순천만국기정원, 여수 한화아쿠아플라넷, 강진 가우도 쥘트랙 등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 30곳의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인호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사무국장은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권 하나로 완도 관광은 물론 전남 주요 관광지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알차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2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갑질 공무원 무관용”...여수시 조직쇄신 착수

회식문화 개선·업무시간 외 단톡방 제한 여수시가 갑질이나 공직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조직쇄신에 나섰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쇄신대책을 발표했다. 여수시는 갑질 행위나 공직 비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자 고충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조직 화합 리더십 평

가’를 연 2회 실시하는 등 갑질 행위를 예방하는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사서나 보건·농업·지도직 등 소수 직종은 순환보직제를 신설해 인사 교류를 한다. 회식문화 개선, 대체휴무 보장, 업무시간 외 단톡방 사용 제한 등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권 시장은 “이번 공직문화 전반에 대한 쇄신책 마련으로 성별·직급·세대 간 갈등의 벽을 허물고 창의적이면서도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시, 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전남서 유일

순천시는 최근 국회의원과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인 16주년 기념식’에서 국가균형발전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세종시·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한 국가균형발전대상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끈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에 주어진다. 순천시는 전남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9월 균형발전박람회 개최지로써 지방 중소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균형발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과 ‘유유낙락 향림골 만들기 사업’이 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디지털과 생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순천형 가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